

출판사명	에버리치홀딩스	도서명	골드
------	---------	-----	----

경제위기에도 '금'은 끄덕없다

인류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자연에 도전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생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구·기술·조직을 만들어 내는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화폐는 협력과 경쟁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폐 탄생 이후 모든 정부가 안정된 화폐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제투자전략가인 네이선 루이스는 많은 국가들이 추구해 온 '낮은 세율과 안정된 통화'라는 상반된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밀한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인간이 만든 최대 발명품인 화폐경제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실현하기 위해 번갈아가면서 드세해 왔다. 사상 최악의 금융 쓰나미를 겪는 세계에는 다시 안정된 통화의 힘이 우세해지는 형국이다. 안정된 통화로 '금(gold)'만한 게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기원전 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화폐 역사를 금본위제 중심으로 개관한다. '과거 그리고 미래의 화폐(The Once and Future Money)'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화폐의 유형, 화폐의 역사,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던 세계의 통화 위기



■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 에버리치홀딩스 펴냄

라는 틀 안에서 안정된 화폐로써 금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등이 번갈아 등장해 채무자·채권자 중 어느 한 쪽은 올어야만 하는 변동환율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금본위제도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강조한다. 전세계에 몰아친 금융위기의 원흉이 달러, 즉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4/18 서윤경제

출판사명	이비기지출판	도서명	골드
------	--------	-----	----

‘통화 황제’ 금의 귀환 예고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

3천년 인류 역사상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골드(에버리치 홀딩스)의 작가 네이선 루이스는 인류에게 영원 불변의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금이라고 강조한다. 달러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현재까지 38년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은 기원전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무려 27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화폐로 통용돼 왔다는 것이다.

가자투자전략가로 유명한 저자는 화폐의 유형, 화폐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통화 위기란 큰 틀 안에서 인류의 최초이자 마지막 안정화폐인 금의 모든 것을 낱낱히 파헤치고 있다.

종이 화폐인 달러는 인간의 탐욕에 따라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왔고, 2007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흉도 바로 달러라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를 태우고 금을 모으라’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통화 위기 사례로 한국의 IMF구제금융 등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송홍방의 ‘통화전쟁’이 달러의 위상 약화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책이라면, 네이선 루이스의 ‘골드’는 통화의 황제적인 금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하는 작품이라 할 만 한다.



〈에버리치홀딩스·2만 8천원〉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4/25 광주일보

달러의 시대 저물고 金의 시대 다시 온다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

미국의 금융위기 돌파구는 결국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이다. 부실 기업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각종 경기 부양책에 쏟아부을 천문학적인 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달러를 계속 발행해 국채와 기업어음, 모기지 채권 등을 사줘야 할 처지다. 결국 과잉 공급된 달러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부실로 달러가치가 폭락하면 금본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 '골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발간 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금 열풍을 일으킨 책으로 최근 국내 출간됐다.

금본위제란 통화가치를 정량의 금 가치에 고정시킨 지폐를 사용하는 통화 정책.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하로 떨어지면 지폐를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반대로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폐 공급을 늘린다. 보유한 금의 가치에 따라 지폐 발행과 폐기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과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제투자전략가인 네이선 루이스는 "금본위제는 고정된 환율에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기업의 사익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며 "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가치를 찾출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FRB와 월가 금융재벌은 오랫동안 달러를 이용해 전 세계 국가의 정치·경제를 교묘하게 조정하며 사욕을 채워왔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학자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금본위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금값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금값은 고공 행진을 거듭했고 최근 한돈(3.75g)의 소비자 가격이 20만원을 넘었다. 희소가치가 있는 금은 부동산이나 주식, 체권처럼 폭락할 염려가 적고 특정 국가 신용도나 전쟁, 사회 혼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돼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위험이 참복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최근 러시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에 기반을 둔 슈퍼통화에 금본위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프랑스도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다. 국제 투기자본도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금 펀드나 금 통장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신(新)골드러시(gold rush)' 현상이 뚜렷하다.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자는 다. 통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은 이제 유동성 부족 방어라는 본래의 기능에만 충실히 된다. 또 통화 혼란을 이용해 세계 여러 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던 국제통화기금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대신 통화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금본위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발행 가능한 화폐량이 한정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데도 화폐 유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고정환율제 도입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과 실업문제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금본위제의 종말을 선언한 바 있다.

달러 대신 '금본위제'로 돌아가자

●골드, 과거 그리고 미래의 화폐

네이선 루이스 지음/에버리치틀링스 펴냄/608쪽/2만8000원

4/17 디지털타임즈

금은 완벽하거나 불변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사용하기 가장 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 이 낮은 광물일 뿐이다.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지 채굴된 금은 1억2500만kg에 달한다. 현재 인류는 약 85%인 1억600만kg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3400만kg은 각국의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 7200만kg은 개인 소유다. 금의 연평균 생산량은 거래량의 2%정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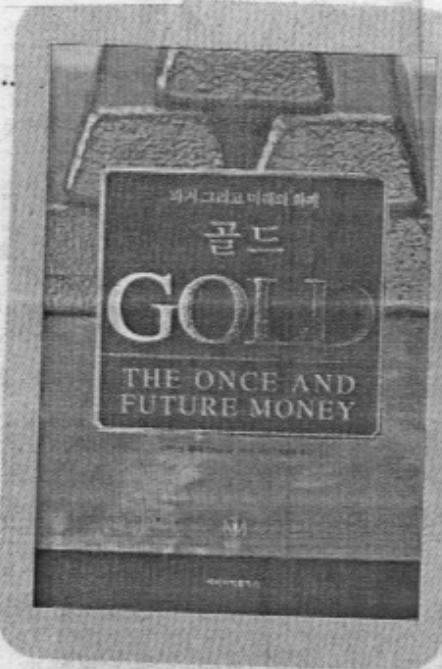
금은 원소의 하나다. 오직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다른 원소와 결합 시킬 수 없다. 변색이 되거나 녹이 슬지도 않는다. 적당히 무르기 때문에 얇게 두드려 금박으로 만들었다가 쉽게 덩어리로 복원할 수 있다. 밀도가 높아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기비자립 부서지거나 깨지지도 않는다. 여기까지가 종이지폐에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화폐의 지존'으로 군림했던 금의 장점이다.

금 이전에는 실로 다양한 물품이 화폐로 쓰였다. 비버 가죽, 물고기, 옥수수 등에서부터 담배, 코코아 열매, 고래 이빨 등 화폐로 사용된 물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금이 등장한 순간 이들은 금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책은 기원전 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한 축을 장식했던 금의 역사를 두루 소개한다. 여기에다 미국의 화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금본위제'를 둘러싼 연방준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탄생과 비화를 파헤친다. 이와 함께 일본경제의 부흥과 몽골,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미래도 심도 있게 다뤄낸다.

저자는 이를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거듭 주장한다. 금본위제야말로 과거 수백년 동안 인류에게 안정된 통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금은 정부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지우고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궁극의 화폐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저자에 따르면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정책을 들연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금본위제의 종말을 선언하고 지난 38년 동안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냈다. 덕분에 연방준비은행과 월가의 금융재벌 역시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주무르며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금본위제의 장점은 유한하며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 자체에 화폐의 기반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금이 매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심스럽게 달러의 세대교체를 예고한다.

이지성기자 ezscape@dt.co.kr

출판사명	이데일리	도서명	골드
------	------	-----	----

“금융위기 해결책은 금본위 화폐제도 복귀”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이은주 옮김
608쪽·2만8000원·에버리치홀딩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던 달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금(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의 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저자는 금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본위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달러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본위제는 안정적이지 못한 데 비해 금본위제는 수량이 유한한 금에 기반을 둘으로써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처럼 지



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 신용도 변화, 사회 혼란, 전쟁 등의 요인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에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역사를 두루 고찰하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1929년 발생한 대공황 시절의 화폐 가치, 1970년대 남미의 경제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사도 통화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

4/18 충북일보

‘금본위제’로의 회귀 주장

골드/네이선 루이스

2007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흉이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전 세계는 지금 ‘금본위제로의 귀환’을 꿈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대치에 답하는 책이 나왔다. ‘과거 그리고 미래의 화폐’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골드’(네이선 루이스)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겸증된 최적의 통화 수단이 금이 있음을 입증하면서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하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조개껍데기, 구슬로 만든 염주, 쌀, 구리, 청동, 은 등이 통화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금이 등장하자



이들은 이내 ‘화폐 지존’의 자리를 내주고 모두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실한 금에 대한 겸증이 있겠느냐는 것.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금본위제의 보다 심도 깊은 장점들을 역설한다. 예컨데 금본위제는 고정된 환율하에서 안정적인 물가를 도모하며 인플레이션을 막고 정부나 민간 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좌지우지되거나 않는다는 것.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가격 정보에 대한 왜곡현상, 덤핑으로 인한 무역마찰 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금은 인류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달러를 태우고 금을 모아라”라고 외치며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 이은주 옮김/에버리치홀딩스/2만8천원. 정달식 기자 dosol@

4/18 충북일보

경제위기 해결사, 금본위제 부활시켜라!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
에버리치 출판스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 금값이 연일 강세다. 금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단단하다. 저명한 컬럼니스트 네이선 루이스는 귀금속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이 인류 역사에 자연스럽게 화폐로 자리잡은 과정과 함께 근세기에 들어 금을 제치고 왜 각국 정부가 정부 발권력에 의한 종이 화폐를 발행하게 됐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

과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설립 과정에서 당시의 지배적인 금융 자본 세력들이 신용 유동성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금 보유가 필요한 금본위제를 폐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금본위제 폐지로 중앙은행이 마구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현대 경제의 대표적인 현상 즉, 인플레이션과 주기적인 거품경제, 그리고 개도국의 외환 위기 발생 등을 1977년 아시아 경제 위기와 러시아 동유럽 사례,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등을 통해 보여 준다.

결국 현대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적은 화폐 체제, 즉 금본위제로 귀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 본위제로 돌아가면 각국의 통화 남발이 사라져 화폐 가치가 안정되며 곧 바로 인플레이션의 악습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 가치에 불안정성도 사라져 외환위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절하를 통한 담핑 무역 분쟁 소지도 사라지니 일석 3조다.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에 빠진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거시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해 온 국제통화기금(IMF)도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흉이 바로 미국 FRB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달러화의 유동성 과잉이라는 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금본위 시대의 귀환... 달러 태우고 금을 모아라

글

제이슨 루이스 저음
이은주 옮김
케비리치 훌品德
08쪽 | 2만800원



금화가 그리고 미래의 화폐
제이슨 루이스 저음
이은주 옮김
케비리치 훌品德
08쪽 | 2만800원

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달러 중동을 선언했던 금본위제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금본위제를 포기하는 대신 달러 중심의 변동환율제를택한 미국 정부는 이후 30년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었고 2007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고 지나가는 아니 수십년은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 대가에서 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로서는 경화체제로 복귀하는 수밖에 물리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경화 자체 복귀의 장점을 들라면 한도 끌고 없어야 되는 해법이다. 국민은 물론 개발도상국 50억 국민에게 들키는 주장은 10억에 달하는 선진 국가로서는 주장을 간단하고 명확하

했지만 거의 대부분 금의 위력 앞에 꼬리를 내렸다. 조개껍데기에서 소, 밀, 석판, 구슬을 렌 염주, 남비와 쇠고챙이, 금속고리, 구리, 청동, 은, 코코아 알이나 고래 이빨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물품이 화폐로 사용됐다. 그러나 금이 등장하자 이내 지존의 자리에 이바로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고 지나가는 설명한다. 시장의 메커니즘 대신 미국 정부의 조작에 의한 달러 발행량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인위적인 승지와 폐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책은 기원 전 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유형과 통화 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화폐의 역사와 세계사 속의 통화 위기 저자는 “한국과의 경제는 통화의 가치가 무게 중심 근처에서 둘락하면서 최대한 그 중심에 기운 곳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잘기능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금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통화수단이 등장 했지만 거의 대부분 금의 위력 앞에 꼬리를 내렸다. 조개껍데기에서 소, 밀, 석판, 구슬을 렌 염주, 남비와 쇠고챙이, 금속고리, 구리, 청동, 은, 코코아 알이나 고래 이빨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물품이 화폐로 사용됐다. 그러나 금이 등장하자 이내 지존의 자리에 이바로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고 지나가는 설명한다. 시장의 메커니즘 대신 미국 정부의 조작에 의한 달러 발행량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인위적인 승지와 폐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책은 기원 전 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유형과 통화 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화폐의 역사와 세계사 속의 통화 위기 저자는 “한국과의 경제는 통화의 가치가 무게 중심 근처에서 둘락하면서 최대한 그 중심에 기운 곳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잘기능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금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통화수단이 등장 했지만 거의 대부분 금의 위력 앞에 꼬리를 내렸다. 조개껍데기에서 소, 밀, 석판, 구슬을 렌 염주, 남비와 쇠고챙이, 금속고리, 구리, 청동, 은, 코코아 알이나 고래 이빨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물품이 화폐로 사용됐다. 그러나 금이 등장하자 이내 지존의 자리에 이바로 달러에 연동된 변동환율제라고 지나가는 설명한다. 시장의 메커니즘 대신 미국 정부의 조작에 의한 달러 발행량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인위적인 승지와 폐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부침에 크게 뒤틀리지 않는다. 또한 금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무른 성질 때문에

분할과 복원(통합)이 쉽다.

저자의 주장대로 금본위제가 시행되면

화를 발행하는 대신 이를 기관화하는 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담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2001년까

지 채굴된 금 1억 2500만 kg 가운데 85%가

랑인 1억 600만 kg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00만 kg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은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p

[금본위제] 포기는 인류의 뼈아픈 실수



인 지은이는 당시 학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서방 은행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단언한다. IMF가 한국 민의 허리띠를 졸라매 한국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방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단지 통화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이다. 통화 규모는 그나마 돈많이 써서는 성간다. 돈 발행량을 줄여 돈값을 올리면 그뿐이다. 그런데도 IMF가 고금리, 증세 처방을 한 것은 감기 환자에게 암 치료용 병사선을 뛰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재정은 틀튼했고, 기업 부채도 문제될 게 없었다. 같은 일이 서방세계에서 벌어졌다며 결코 같은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은이는 확인한다.

그의 처량한 금본위제이다. 5,000년 전부터 있었고, 본래 화폐제도가 등장한 근세 400년간 아무 문제없이 작동한 금본위제. 이걸 인류가 포기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 곳곳에서 짐음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90년대 말 동아시아 위기는 물론, 아르헨티나·멕시코·브라질·러시아·유고슬라비아의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도 변동환율제 때문이란다.

A black and white illustration of a large stack of coins. The coins are arranged in several vertical columns, some overlapping. The designs on the coins are varied, with some showing figures and others showing more abstract or detailed patterns. A prominent coin in the center features a figure standing on a base, possibly a deity or a historical figure, surrounded by rays of light.

금본위제는 장점무성이다. 낮은 금리, 인정된 통화 가치,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산업생산을 보장한다. 금 본위제가 되면 인기지종도 바뀐다. 외환딜러나 과생 상품 담당자는 고졸 학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1% 차이 넘게 벌어지는 일이 10년에 한번쯤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핫미니의 환투기는 이에 끝내 가게 된다.

물거리는 동안 중국 규시아가 언대히 금본위제 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바뀔 것이라 지 않았다.

제목은 골드지만, 실제는 인류의 금융 통화 전반을 다뤘다. 맨유나 버밍엄 경제학이 공라면, 이 책은 참고서라 할 만하다. 혼자 학습만 힘들고 친절하다. 경제와 통화위기에

나라 경제가 가장 친연히 꽂피웠던 때는 모두 금본위제 아래서다. 고대 그리스·로마는 물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과 '팍스 아메리카나'가 안다. 미국이 마

듯거리는 동안 중국·러시아가 연대해 금본
택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바뀔 것이란
지 않았다.

제목은 골드지만, 실제는 인류의 금융·통
전'Brien을 다뤘다. 맨유나 베벌리 경제학이 공
라면, 이 책은 참고서라 할 만하다. 훈자 학
할 만큼 쉽고 친절하다. 경제와 통화위기에
관념도 확 깨 준다. 움긴이는 "독지에께 조금
리 선보이려고 싶어 조마심이 들만큼 흥미롭
책"이라고 말했다. 따뜻는 말이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large stack of gold coins, likely Chinese Yuan, arranged in several vertical columns. The coins have a distinct circular shape with intricate patterns and characters embossed on them.